

2018년 여름 뉴욕목회자 세미나

주제: 주일강단을 회복하라-성령이 이끄시는 사도행전적 교회

주관: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 (회장 이재철목사)

후원: 뉴욕교협, 뉴욕목사회, 뉴저지교협, 뉴저지목사회, 리바이벌네트워크, 한국기독교사연구소

장소: 나무교회 (정주성목사) 40-15 149 Flushing NY 11354

일시: 2018년 8월 13일 오전 10:00-12:30

들어가면서

오늘 세미나는 필자의 전공, 연구, 경험에 토대를 가지고 진행함을 밝힌다. 오늘 세미나는 필자가 뉴욕목회자세미나를 위해 처음 준비한 주일강단 회복을 위한 시론의 논고이다.

교회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되었다. 위대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도 거기에 있다. 루터가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설교했다. 칼빈의 제네바 개혁의 위대한 원동력은 예배의 개혁에서 시작되었다.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스트拉斯부르크에서 3년 동안 그는 피난민교회를 섬기면서, 또 마틴 부처와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실감했다. 그래서 1541년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후 예배 개혁을 제일먼저 단행했다. 그가 단행한 예배는 보는 예배에서 들리는 예배로의 개혁이었다. 말씀과 성례 기도 중심의 예배를 만들어 갔다. 개혁주의에서는 이들 3가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 은혜의 수단 3가지가 예배에 함께 있어야하고, 그것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친다.

I. 주일강단 회복을 위한 중요한 몇 가지 제언

1. 주일 강단의 회복은 목회자의 ()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 1) 담임이 ()으로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된다.
 - 2) 하디가 은혜를 받고 나서 원산감리교회가 달라졌고, 이길함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장대현교회와 평양대부흥이 발흥했으며, 길선주가 은혜를 받고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다.
 - 3) 미국은 물론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거해 주고 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눈다.

2. 주일강단의 회복은 ()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1) 마틴 루터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했다.

마틴루터의 고백, “나는 아무 것도 한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세계부흥운동사, 189)

2) 목회자가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강단이 살아난다.

3) 어느 목회자의 고백. ‘내가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 내 영이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으니 목회가 피곤하지 않아요.’

3. 목회자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해야 한다.

1)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계성경무오협회 시카고 선언.

2) ‘목회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중표, 별세의 지도자)

*어느 목회자의 진솔한 고백-합동 출신으로 통합교단에서 활동하는 목회자

3)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δύναμις γὰρ Θεοῦ, the power indeed of God)이라’(롬1:16)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와 동일한 두나 미스이다.

4)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고별부탁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듣는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 20:32)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함으로 말씀과 하나님을 나란히 두었다.

5)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동격으로 두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다.

4. 강단에서 ()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외쳐져야 한다. 주일 강단의 회복은 목회자가 먼저 깨어나 청중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선포할 때 가능하다.

1)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설교와 사도들의 설교가 등장한다. 이들 메시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였다.

2)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 사도행전이 역동적인 것은 회개의 복음이 끊임없이 외쳐졌기 때문이다. 회개가 마태복음에 8회, 마가복음에 3회, 요한복음에는 1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13회 사도행전에 10번이 등장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령이 중심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성령과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누가는 영적각성, 성령의 역사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였다.

3)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님은 회개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다.

(1)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눅 5:32)

(2)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 5)

(3)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 10)

(4)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눅 24: 47) 사도행전 1: 8절을 사복음서의 시각에서 제시한 것이다.

4) 사도들도 회개와 죄용서의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이 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1)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

(2)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 19)

(3)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행 5: 31)

(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행 11: 18)

(5)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 30)

(6)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행 20: 21)-에베소에서 전한 바울의 복음

(7)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행 26: 20)

이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구들이 증언하듯 예수님과 사도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다. 회개는 은혜를 회복하는 척경이다. 의사 누

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초대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증거해주고 있다.

5) 주일 강단의 회복은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 선포 없이는 불가능하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환자에게 이병도 있고 저 병도 있다고 병을 지적하는데 한국교회는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목사들이 팬찮다 팬찮다고 말하고 있다.’(박명수 교수)

6) 무디가 외친 복음의 핵심은 3R이다. 죄로 암미암은 타락(Ruin by sin),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Redemption by Christ), 성령에 의한 중생(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이 그것이다. 강단에서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회개를 통해 죄용서의 복음이 계속되어 회개와 죄용서의 감격이 계속 순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목회자부터 죄의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II. 강단 회복을 위한 몇 가지 바람직한 설교자 상 비교 연구 모델 제시

1. 탁월한 강해 설교가 이동원 목사님

종신에서 설교학 교수하는 어느 설교학 교수가 한국교회 강해 설교자의 모델로서 이동원 목사님을 들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참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 그런 평가를 받는가?

(1)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 재능은 천부적인 것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1주일에 3권의 책을 읽는다고 30년 전에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수년전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지금도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 내가 쓴 <제주기독교회사>도 읽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 많은 독서가 그의 메시지의 중요한 배경(사상과 내용, 예화, 언어구사)을 발전시켜 준 것이다.

(2) 그의 설교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그의 설교에는 영성이 깊이 느껴진다.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의 설교에는 영성의 훈련에서 나오는 깊은 영적 은혜가 깊이 배어 있다.

(3) 또 하나는 성경을 정확히 보는 안목이다. 성경의 본문을 택할 때 그 본문 자체에서만 아니라 전후관계에서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

(4) 적용이 뛰어나다. 보통 적용을 설교자가 소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오늘 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길을 제시하여 준다.

(5) 적절한 예화가 그의 설교를 더욱 은혜롭게 만들어 준다. 그는 설교 예화로 설교의 서두를 열어간다. 그래서 청중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적용을 제시해준다. 설교 중간에도 예화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그런데 그 예화 가운데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 많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힘이 있고, 감동적이며, 깊은 도전을 준다.

(6) 교회의 역사를 참 사랑한다. 그가 청교도의 천로역정을 처음 도입한 것은 대표적이다. 이 뿐 아니라 그는 한국교회의 영성이 느껴지는 오래된 역사의 현장을 찾아 늘 그곳에서 교훈을 얻고 자신의 영성의 그릇을 채워간다.

(7) 그의 설교 못지 않게 그의 삶이 아름답다. 참 그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한다. 그는 자신의 유명세를 내세우지도 그것으로 교만하지도 않다.

2.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탁월한 목회자요 설교자 옥한흠 목사님

제가 옥한흠 목사님과 만나 교제를 나눈 것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너무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 한다. 한국교회가 그 분을 제자리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다. 그분이 한국교회에 남긴 족적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히 제자운동, 강해설교, 대각성전도집회는 한국교회를 살린 원동력이다.

1) '한국교회 성장의 두 흐름이 있다. 하나는 조용기의 성령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옥한흠의 제자운동이다.'(이중표)

2) 제자운동은 성령운동으로 인한 역기능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운 한계를 만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든 놀라운 신앙운동이었다.

3) 오늘날 그래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모두가 옥한흠으로부터 제자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다. 예를 들어 부산 호산나교회(최홍준), 부산수영로교회(정필도, 이규현), 안산동산교회(김인중), 울산대명교회(조운), 부산부전교회(박성규), 목포사랑의교회(백동조), 대구동신교회(권성수), 대전새로남교회(오정호), 분당우리교회(이찬수), 서울광염교회(조현삼), 오륜교회, 인천제이장로교회(이건영), 남가주사랑의교회, 뉴저지초대교회(과거) 등 국내외에 수많은 교회들이 옥한흠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다. 오늘날 그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예장합동의 생명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4) 옥한흠 목사는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강해 설교가라고 생각한다. 왜 그의 설교가 그렇게 탁월한 메시지인가?

(1) 그의 설교는 본문에서 마치 성경저자가 말하고 하는 것, 신적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도 잘 뽑아내서 오늘날 삶에 적용하도록 도전을 준다.

(2) 그는 청중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청중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한 대표적인 설교자이다. 그는 오금이 저리도록 현대인들의 잘못된 죄악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3) 철저한 준비를 거쳐 나온 정련된 설교이다. 설교 한편에 생명을 건다. 책상에는 일주일 내내 영문 주석들이 펼쳐져 있다.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준비한다. 그 교회를 한동안 다닌 적이 있는 동료 교수가 '어떻게 그 본문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놀랍다'(어느 총신 신약학 교수)가 내게 말한 적이 있다.

- (4) 신학적으로도 바르고 정확하다. 성경학자들도 흠이 없다고 평가하는 설교이다. 총신 신약 교수 출신의 권성수 목사는 공개적으로 옥한흠 목사님의 설교를 롤 모델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권성수 목사님의 설교도 참 대단하다. 그가 '성령설교'라는 책을 저술했다. 강단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동원 목사님이 30년 전에 그를 앞으로 차세대 주자로 주목하는 인물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
- (5) 그의 설교는 늘 기대가되고 참신하다. 기다려 지는 설교이다. 옥한흠은 강단에서 같은 설교를 2 번이상 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늘 새로운 설교를 준비한다.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말씀의 은혜에 젖을 수 있다.
- (6)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대각성전도집회 때 그가 강사로 서서 설교했는데 그런 설교를 '전도설교'라고 불렀다. 내가 볼 때 전도설교라는 말을 그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적어도 전도설교라는 영역을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만든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 (7) 그의 설교에는 깊은 영성이 물어나고, 영적 결단과 도전을 준다. 그는 평생 성령을 간구한 설교자였다. 혹자는 새벽기도를 하지 않은 목회자라고 폄하하지만 그는 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상당히 이른 나이에 은혜를 체험했다. 그가 가장 간절히 소망한 기도 제목은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충만을 주옵소서'이었다.

3. 옥한흠과 이동원은 하용조 홍정길과 더불어 복음주의 4인방의 주역이었다.

- 1) 홍정길, 하용조, 이동원과 함께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 앞장섰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같이 갖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옥한흠-홍정길-이동원-하용조 목사님은 서로 가까운 교제를 나누며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이들은 복음주의 자의식을 가진 인물들이었지만 서로 달랐다. '하용조 목사는 나와 참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옥한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통해 배운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 2)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사역했다. 두란노서원이 큰 것은 옥한흠, 홍정길, 이동원 목사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두란노서원은 이를 목회자들의 책을 독점 출판하였다. 두란노서원은 이들의 작품들을 널리 소개하고, 이들의 복음주의 정신을 널리 한국교회에 소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작품들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여 저자와 출판사가 서로 유익을 얻었다.
- 3) 이들을 묶어준 끈은 초교파선교단체였다. 홍정길과 하용조 모두 CCC 출신이고, 이동원은 YFC 출신이고, 옥한흠은 네비게이토를 통해 제자훈련의 정신을 배웠다.

4) 이들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을 묶어주는 끈 3가지가 있다.

첫째,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믿었다. 이들 4 사람 모두 성경의 무오성을 믿었다.

둘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이들이다. 하용조는 간이 약해 늘 기도해야 하였고, 옥한흠도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맸으며, 하용조와 홍정길은 김준곤 목사님 밑에서 금식기도와 영성을 깊이 배우고 체험했다.

셋째, 교회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교단이 다르고 서로가 추구하는 성향이 달랐지만 그런데도 서로 연합하며 한국교회의 유익을 위해 노력했다. 교파주의와

분리주의를 극복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를 받는다.

넷째, 연합운동을 지향했다. 코스타, 북방선교, 문서선교는 대표적이다.

4. 옥한흠, 이동원 목사님의 몇 가지 설교준비 실제

오늘날 주일 강단의 설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전체 원고를 준비하는 설교 스타일이다. 둘째, 메모를 해서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는 스타일이다. 셋째,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원고나 메모 없이 설교하는 스타일이다. 첫 번째 유형도 원고를 처음부터 준비해서 차분하게 읽어 가는 설교 스타일이 있고, 그 내용 중에 핵심을 설교하는 스타일이 있다.

1) 옥한흠 목사님-평생 3단계의 설교를 함

(1) 개척 초기-메모설교 (2) 교회건축후-전문설교원고준비하고 원고 설교 (3) 둘의 조화

2) 이동원 목사님-평생 메모설교-청중들과 아이 칸택을 하며 진행하는 설교

3) 흥정길 목사님-코스타에서, 그의 남서울교회 설교, 메모설교

4) 하용조 목사님-원고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설교

* 한 사례로서 필자의 경험과 제언

각자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취한다. 필자의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먼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성구를 본문으로 택한다

2) 묵상에서 나온 내용을 메시지로 발전시킨다.

3) 차분하게 앉아 그 내용을 설교 형식으로 발전시킨다.

4) 주석을 참고하여 읽는다. 반드시 2개의 주석을 본다. 칼빈 주석과 이상근 목사님 주석이다. 칼빈주석은 내용이 깊고 본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해주고, 이상근 목사님 주석은 헬라어 원문을 매우 간결하게 설명해준다. 이를 주석을 참고하여 설교를 발전시킨다. 요즘은 헬라어 원문을 보고 원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려고 한다.

5) 적절한 예화를 교회사에서 찾는다.

6) 설교 후에 다시 원고를 수정하여 최종원고를 파일로 남겨 놓는다.

7) 과거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원고를 차분하게 읽으면서 나의 것으로 다시 재 소화를 시키고, 적절한 예화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여 더 완성도를 높인다. 물론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긴다.

III. 사도행전을 설교하라. 왜 사도행전을 설교해야 하는가?

오늘날 신학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학이 사변적이고 현실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부흥, 교회, 삼위일체 모두 필자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있고, 찾으려 한다.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하다.

오늘날 시들어 가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사도행전

적 교회이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설교자가 사도행전을 다시 깊이 연구하고, 자신이 배우고 깨닫고 발견한 것을 강단에서 외치고 교인들과 나누는 것에서 출발한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 일에 목회자가 정말 열심을 다하면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

1.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사이다.

2. 사도행전은 교회의 영적의 길을 정확히 제시한다.

- 1)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열심히 배우면 목회자와 교인들 모두가 깨어난다. 사도행전을 설교하면 먼저 설교자 자신이 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인이 산다. 사도행전은 목회자, 교인, 교회를 깨운다. 사도행전을 설교하면 목회자가 살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난다.
- 2) 옥한흠 목사님은 강남은평교회(사랑의교회전신)를 개척하고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설교했다. 사랑의교회의 놀라운 기적은 이 기간 처음 몇 년간에 토대가 구축되었다. 옥한흠 목사님 아니라 흥정길, 이동원, 하용조 목사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인들을 깨우고 교회의 영성을 쌓아갔다.
- 3) 최근 뉴욕에 새로 부임한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먼저 목회자 자신이 영적인 도전을 받는다.

3.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한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너무도 분명하게 제시한다.

- 1)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과 함께 시작되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태동되고 확장되고 결실을 맺었다. 예루살렘교회, 사마리아, 가이사랴, 안디옥, 에베소, 로마 모두 성령의 부으심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었다.
- 2)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태동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성령의 능력이 개인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
- 3) 신약 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구원 받은 성령의 백성들이다. 신약의 교회는 성령과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았다. “성령과 우리”-성령과 교회를 동일시했다. 성령이 지배하는 공동체,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였다.
- 4)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역사에 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생명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 5) 신약의 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말씀과 기도의 교회였으며, 성령충만을 간절히 사모했다.
- 6) 신약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럴 때 사도행전적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

4. 성령이 이끄시는 사도행전적 교회.

어떻게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이 교훈하는 길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의 교회에는 언제나 세 가지 결실이 있었다. 전도(선교), 성장, 사회적 각성과 변혁이 그것이다. 예루살렘교회가 그랬고 안디옥교회가 그랬다. 사도행전만 아니라 지난 교회사에 나타난 생명력 있는 교회들에는 늘 이들 세 가지 결실들이 있었다. 이들 세 가지 결실은 참된 부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사도행전과 교회사에 나타난 부흥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1) 기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령의 임하심을 누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의 부으심이 모종의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일관되게 증언한다.

2) 말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선포하고, 실천해야 한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오래전 사도행전 10장 44-45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강단에 본문을 암기하고 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암기해야 할 것이다. 23살에 세네카의 관용론을 저술한 칼빈이 불과 3년 만에 기독교강요를 저술했다. 기독교 강요를 읽다보면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말이다. 그의 놀라운 기독교 강요의 힘은 성경연구에서 나왔다고 확신한다. 원산부흥운동과 평양대부흥운동은 사경회에서 일어났다.

3) 회개: 회개의 역사이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안지울 수 없다. 구원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 주님이 오신 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참된 부흥이 임할 때마다 놀라운 회개가 있었다. 오순절 날도 베드로가 회개를 외쳤고, 3천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4) 성령충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행 2:4)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다(행 4:30)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20절에서 성령충만을 받으라고 명한다. 너무도 중요한 명령이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성령충만을 받았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베드로, 일곱집사, 스데반, 빌립, 바울, 사마리아, 가이사랴, 고넬료,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맺는 말

1.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 칼빈은 이렇게 탄식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을 근심케 하더니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2.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너무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도시대와 동일한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계시적 차원에서 역사가 계속될 수는 없다. 오늘날 특별계시 계속되지 않는다. 성경은 완성되었다. 오늘날에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으로 교회가 태동되었다.
3.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메시지를 목마르게 찾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맡고 있는 양들을 살려야 하고, 깨워야 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하고, 죄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전을 주어야 한다.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날 사도행전적 교회를 사모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하고, 뭉쳐야 하고, 함께 격려해야 한다.
4. 교회를 갠신시키고 개혁시키고 회복시킨 주역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문도,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일곱집사, 스데반, 빌립, 안디옥교회 태동자들도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루터, 칼빈, 낙스, 청교도 지도자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다니엘 로랜즈, 제레마이어 램피에르, 스펠전, 무디, 로이드 존스, 제임스 패커, 빌리 그래함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래함 리, 마펫, 블레어, 베어드, 번하이젤, 매쿤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들을 계승한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옥한흠 목사님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었다.
5. 결론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사도행전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일강단을 회복하려면 목회자 자신이 먼저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 1) 주일 강단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 2) 이 말씀의 회복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하다.
 - 3) 교회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 태동되었고, 교회는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성령의 공동체이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간구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 4)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배우고 설교하고 실천해야 한다.

* 같은 이상을 가지고 1주일에 1번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의 나눔을 가진다.

성령행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90-92주간)

서 론

제 I부 오순절과 예루살렘교회의 태동(1:1-2)

제 1장 오순절 성령강림의 준비(1:1-26)

1. 사도행전 서론(1:1-2)
2. 예수님의 40일 간의 사역과 지상 명령(1:3-8)
3.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약속(1:9-11)
4. 마가의 다락방서 약속을 기다리는 120 문도(1:12-26)

제 2장 오순절 사건과 그 의미(2:1-47)

1. 오순절 성령강림(2:1-13)
2. 베드로의 설교와 청중의 반응(2:14-41)
3. 최초의 부흥으로서 오순절 성령강림
4. 오순절 관련 몇가지 신학적 논의
5. 결론: 성령충만한 예루살렘공동체(2:42-47)

제 II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확장(3:1-6:7)

제 3장 앉은뱅이 치료와 복음의 확장(3:1-4:31)

1. 앉은뱅이를 일으킨 베드로(2:1-10)
2. 베드로의 설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2:11-26)
3. 대제사장 앞에 선 베드로(4:1-22)
4. 교회의 대응 (4: 23-31)

제 4장 성령충만한 예루살렘공동체와 시험(4:32-5:11)

1.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 모습(4:32-37)
2. 아나니아와 삽비라(5:1-11)

제 5장 유대주의 박해와 복음의 확장(5:12-6:7)

1. 사도들의 이적과 박해(5:13-32)
2.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하나님(5:33-42)
3. 일곱 사람의 선택과 그 의미(6:1-6)
4. 결론: 예루살렘에서의 놀라운 복음전파(6:7)

제 III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6:8-9:31)

제 6장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6:8-8:1)

1. 성령충만한 스데반과 체포(6:9-15)
2. 스데반의 설교와 변호(7:1-53)

3. 스데반의 순교(7:54-8:1)

제 7장 사마리아의 복음전도와 그 의의(8:1-8:40)

1. 스데반의 박해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짐(8:1-3)
2. 빌립의 사마리아 복음전파(8:4-25)
3. 빌립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 전도(8:26-39)
4. 빌립의 팔레스타인 해안 전도(8:40)

제 8장 사울의 회심과 이방선교의 준비(9:1-31)

1. 사울의 회심(9:1-9)
2. 아나니아와의 만남과 사울의 사역준비(9:10-22)
3. 사울의 다메섹 전도와 피신(9:23-25)
4.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과 다소로 피신(9:26-30)
5. III 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전파의 결론(9:31)

제 IV부 안디옥으로 복음 확장(9:32-12:24)

제 9장 베드로의 이방전도와 고넬료의 회심(9:32-10:48)

1. 베드로의 애니아와 도르가 전도(9:32-43)
2. 가이사랴 고넬료의 신앙(10:1-16)
3. 베드로의 고넬료 방문과 가이사랴 오순절(10:17-48)

제 10장 이방선교의 센터, 안디옥교회의 태동(11:1-30)

1. 예루살렘교회의 이방선교 논쟁(11:1-18)
2. 이방선교의 센터, 안디옥교회(11:19-26)
3. 예루살렘의 기근과 안디옥교회의 구제(11:27-30)

제 11장 헤롯의 박해와 복음의 확장(12:1-25)

1. 헤롯의 박해(12:1-5)
2.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12:6-19)
3. 박해자의 최후(12:20-23)
4. 결론: 안디옥으로 복음확장(12:24-25)

제 V부 소아시아로 복음 확장(13:1-16:5)

제12장 바울의 1차 선교여행과 소아시아 선교(13:1-14:28)

1. 바울과 바나바 파송(13:1-3)
2.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사역(13:4-12)
3.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의 첫 설교와 반응(13:13-52)
4.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선교(14:1-20)
5.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14:21-28)

제13장 예루살렘회의와 이방선교의 공인(15:1-35)

1.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회심 보고(15:1-5)
2. 베드로의 이방선교 변호(15:6-11)
3. 야고보의 중재(15:12-21)
4. 바울과 바나바 귀환과 안디옥교회의 환대(15:22 -35)

제14장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소아시아 선교 확증(15:36-16:5)

1. 2차전도여행 출발과 실라(15:36-40)
2. 디모데를 택한 바울(행 16:1-4)
3. 결론: 소아시아로 복음확장(16:5)

제 VI부 마게도냐 에게해(海)로 복음확장(16:6-19:20)

제15장 바울의 마게도냐 빌립보 선교(16:6-40)

1. 바울의 마게도냐 선교 착수(16:6-15)
2. 빌립보 성에서의 복음전파(16:16-34)
3. 바울의 교회와 정부관계 이해(16: 35-40)

제16장 바울의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의 선교(17:1-34)

1.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17:1-9)
2. 바울의 베뢰아 선교(17:10-15)
3. 바울의 아덴 선교(17:16-34)

제17장 바울의 고린도와 에베소 선교(18:1-19:20)

1. 바울의 고린도 선교(18:1-11)
2. 고린도에서의 훈련과 연단(18:12-17)
3. 새로운 선교사역의 준비(18:18-28)
4. 바울의 에베소 선교(19:1-19)
5. IV부 결론: 마게도냐 에게해로 복음확장(19:20)

제 VII부 로마로 복음확장: 로마를 향하여(19:21-28:31)

제18장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과 로마행 준비(19:21-21:14)

1. 바울의 오랜 숙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19:21-22)
2.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의 선동(19:23-41)
3.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20:1-12)
4. 밀레도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인사(20: 13-38)
5.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빌립의 만남(21: 1-14)

제19장 예루살렘에서의 바울(21:15-23:35)

1.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21:15-26)
2. 바울의 체포(21: 27-40)
3. 바울의 변증과 유대인들의 참소(22:1-29)

4. 공회 앞에서의 바울의 변증(22: 30-23:11)
5. 바울과 가이사랴로의 이송(23:12-35)

제20장 바울의 재판 (24:1-26:32)

1.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 고발(24:1-9)
2. 벨릭스 총독 앞에 행한 바울의 변명(24:10-27)
3. 베스도 총독의 호의와 로마 황제에게 호소(25:1-12)
4. 아그립바 왕 앞에 선 바울(25:13-26:32)

제21장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27:1-28:10)

1. 바울의 로마 항해 착수(27:1-26)
2. 풍랑으로 인한 파선(27:27-44)
3. 멜리데 섬 안착과 놀라운 표적(28:1-10)

제22장 바울의 로마 입성과 전도(28:11-31)

1. 바울의 로마 입성(28:11-15)
2. 바울의 로마 전도(28:16-29)
3. VII 결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28:30-31)

제23장 바울의 4차 전도여행과 그의 순교

1. 바울의 4차 전도여행
2. 네로 박해와 바울의 순교
3. 바울의 순교 이후 복음의 확산
4. 박해를 넘어 계속된 '땅 끝까지' 선교

맺는 말: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

④ 번개 채우기 정답

1 영락

1-1 영락

2 말씀

3 천험

4 회개